

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분석

An Analysis of Clothing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 in Urban Households

경성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김 영 숙
경성대학교 의류학과
교 수 왕 인 숙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sung Univ.
Assistant Prof.; **Yeong 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sung Univ.
Prof.; **In Sook Wang**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요약 및 결론 |
| II. 가계분석 이론 | 참고문헌 |
| III. 피복류 소비지출구조 분석 | |

< Abstract >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clothing and footwear of urba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an analysis of historical data from relevant literature.

Particularly, time-series and cross sectional analysis techniques are adopted in analysing the patterns of clothing and footwear consumption expenditures of urban households.

Finally, this paper estimates consumption expenditures in the future by comparing these revealed data with the Korea and Japan.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M.R.A. in S.P.S.S. were us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oportion of the clothing and footwear expenditure ha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income in urban household during 1976-1987.

2.1)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by Income group. Income elasticity estimation by Income group, the Lower group is higher than the other group.

2)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by Occupation of household head. Income elasticity estimation in administrative managerial workers is higher than the other group.

3)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by Family size. Income elasticity estimation in 6 Persons is higher than the other group. But 4 Persons is higher in 1986.

4)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by Age of household head. Income elasticity estimation in 50 Years and over is higher than the other group.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clothing and footwear consumption expenditures in Korea and Japan were M.R.A. Generally, the priority correlation order for Korea is Outwear, Sweaters and Shirt, Other clothing. For Japan, the order is Sweaters and Shirts, Underwear, Services.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현대산업사회에서 고도로 발달된 기계문명과 물질 문명은 인간의 소비의식구조와 경제적 가치관 및 생활소비양식을 다양하게 변화시켰고 생활의 질의 향상은 도시가정의 소비생활을 끊임없는 새로운 자극과 경험으로 소비행위를 유도한다.

따라서 피복생활도 점점 변화하여 소비화, 유행화 다양화, 기능화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요와 소비에 비해 생산과 공급이 풍족하여 대량소비가 습관화되어 낭비상태가 출현되기도 한다. 최저의류의 필요량외에 무한한 소유욕으로 피복비의 지출범위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계의 소비지출비목중에서도 소득탄력성 계수가 다른 지출비목보다 높은것으로서 신축성 있는 비목중의 하나임을 뜻한다.

피복류의 소비지출은 소득계층별, 직업별, 가구원수별, 가구주 연령별 및 물자수급상태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본과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첫째,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직업별, 가구원수별, 가구주 연령별로 피복류의 소비지출 구성비, 소비함수(소득탄력성계수)를 추정하여 1963년부터 1986년까지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추이 분석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피복비 소비지출구조를 구성비, 다변인회귀분석에 의한 우선상관계수로서 양국간의 소비구조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도시가정의 소비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통계자료의 결과로서 소비이론에만 접근한다는 것은 그 범위가 제한되며, 계량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가 일반적인 경우이나 본 연구는 계량화 되어있는 연구를 종합하고 1963년부터 1986년까지 년도별로 재정리하여 피복비의 소비지출 추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의 추이 결과에 있어서 자료수집의 미비로 1975년부터 1984년까지로 제한하였다.

II. 가계분석 이론

가계분석이론에 의한 Engel 함수와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현대 가계분석 이론

1) Engel함수(Engel function)의 구조분석

Engel함수는 가계지출의 각 비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Elasticity of Demand)을 측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소득을 설명변수로 하여 가계의 비목별 또는 품목별 지출을 설명하는 이론모형으로서 일반적인 식¹⁾은 다음과 같다.

$$C = \alpha_i + \beta_i \cdot Y_a + \mu_i \dots\dots\dots (1)$$

$$\ln C_i = \alpha_i + \beta_i \cdot \ln Y_a + \mu_i \dots\dots\dots (2)$$

[C는 가구당 비목별 소비지출 Y_a는 가구당 가처분소득

[1]식의 회귀계수(β_i)는 i재의 한계소비성향

[2]식의 회귀계수(β_i)는 i재의 소득탄력성]

두 추정식에서 한계소비성향과 소비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 [1]식은 선형(linear form) 회귀방정식으로서 R.G.D. Allen and A.L. Bowley 이래 널리 사용하여 왔다. [2]식은 양대수형

(double-logarithmic form)으로 R.Stone, S.J. Prais & H.S. Houthakkar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다²⁾. 이식은 [도 II-1]에서와 같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상향으로, 1보다 작으면 하향으로 기울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Engel곡선은 소비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비목, 정상재 ($\beta_i > 0$) 일대 국한된다. 그 품목이 열등재 ($\beta_i < 0$)인 경우 다음 그림과 같아진다.

본 논문은 [2]식에서 소비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2]식에서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신에 가구당 소비지출 ($\sum_{i=1}^n C_i$)과 비목별 소비지출과의 함수 관계도 추정하였다.

$$\ln C_i = \alpha + \beta_i \cdot \ln \sum_{c=1}^n C_c + \mu_i \dots\dots\dots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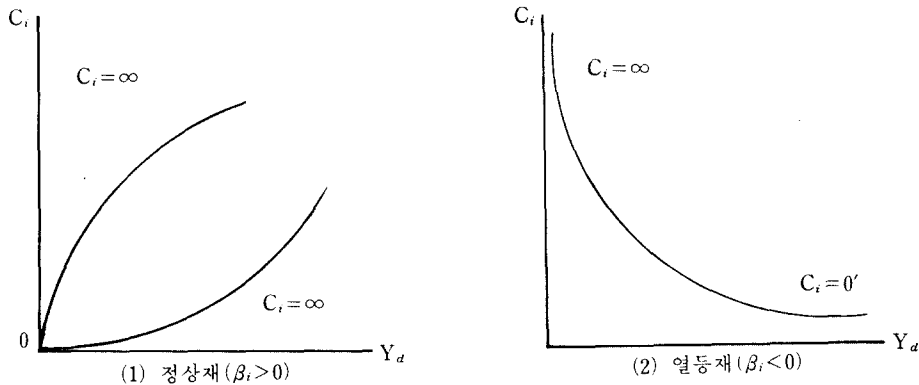
[3]식에 의한 비목별 지출탄력성의 추정은 가계비목별 소득보다는 가계의 생활비에 지배받으며 때로는

가구당 소비지출이 가계소득의 척도가 될 수 있기때문에 분석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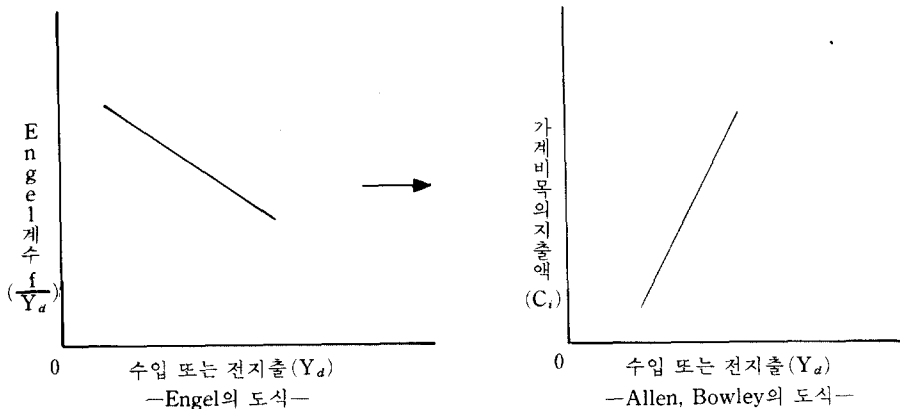
2) 가계지출론

Allen과 Bowley의 「가계지출론—그 차이에 관한 연구」(1935)³⁾는 3개의 논문과 수학적 부록을 편집한 것으로서 이것은 현대의 가계조사 data와 소비자선택이론과의 결합을 의도한 연구로 다음 3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II-2]참조)

1. 수입계층별로 편성된 평균지출액에 일차회귀선을 적용시키는 것에 의해 일반화된 Engel 법칙의 인식과 그 활용……소위 Engel함수에 관한 제논의.
2. 가계지출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중, 특히 수입요인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에 의하여 잔차지출액의 변동을 기호의 차이 (varying tastes)로서 설명하기 위한 표본통계이론의 도입에 관한 제논의.
3. 소비자 선택의 이론에 근거한 지출배분의 이론



[도 II-1] 양대수형 「엔겔」곡선



[도 II-2] 가계지출법칙의 도식

적 검토와 그 수학적 전개.

이와 같은 가계 data에 대한 회귀선의 적용은 각 가계비목의 지출의 긴급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창출해 내게 되었다.

각 비목의 지출액을 C_i , 전지출 혹은 수입액을 Y 로 하면 수입액의 증가율 $\Delta Y/Y$ 에 대한 어떤 비목의 지출액의 증가율 $\Delta C_i/C_i$ 의 비는 수입탄력성이라고 한다. 어떤 비목지출액의 수입탄력성은 η_i 로 정의된다.

$$\text{즉 } \eta_i = \frac{\Delta C_i / C_i}{\Delta Y / Y} \text{ 이 된다.}$$

여기에서 증분개념을 미분개념으로 바꾸어 놓으면

$$\eta_i = \frac{dC_i}{C_i} / \frac{dY}{Y} = \frac{dC_i}{dY} \cdot \frac{Y}{C_i} \text{ 이 된다.}$$

이제 C_i 와 Y 사이에 일차의 회귀선이 들어맞는다고 하면

$$C_i = \alpha_i + \beta Y$$

$$\beta = \frac{dC_i}{dY}$$

$$\therefore \eta_i = \frac{dC_i}{dY} \cdot \frac{Y}{C_i} = \frac{\beta Y}{\beta Y + \alpha_i} \text{ 이 된다.}$$

이 η_i 의 수치의 대소에 따라 그 비목의 경제적 성질은 대소관계가 가계지출의 긴급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즉, $\eta_i > 1$ 의 비목은 우등재로서, 이것은 수입의 증감에 따라 수입의 증감률 이상으로 증감하려고 한다.

따라서 탄력성이 1이상이 되는 재화이다. 반대로 $\eta_i < 0$ 인 비목은 하급재로 불리우고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감소하려고 하는 재화이다. 그리고 그 중간값을 취하는 것이 필수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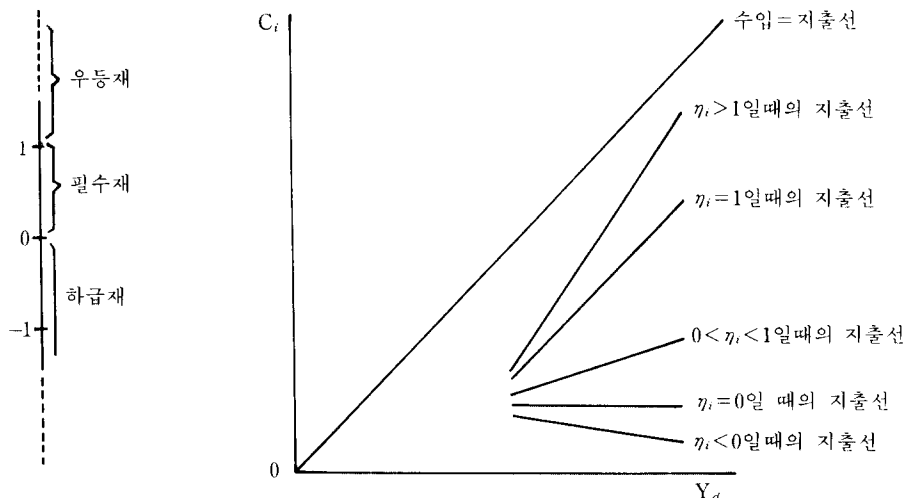
2. 선행연구

Engel의 제2법칙에 의하면 피복비의 소비지출은 「소득의 증가에 관계없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그후 여러나라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규칙이 확립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⁴⁾.

李基榮⁵⁾에 의하면 1963년부터 1971년까지 소비구조의 추이를 위한 시계열분석과 1971년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직업별 소비구조의 차이를 횡단분석한 결과에서 피복비는 1963년부터 1968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69년부터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고 일본과의 비교분석에서도 피복비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1971년 기준의 횡단분석에서 지역별로는 서울(9.9%)과 지방도시(10.0%)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도시간의 평균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농가(7.6%)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계층별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상위계층(6만원이상)에서 그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도 II-3] 탄력성의 의미

있으며 이는 생활의 여유에 따라서 사치품에의 소비가 증가되기 때문이라 하였다(탄력성 1.0257, 소비함수 0.0975×-96).

직업별로는 직원층(10.7%)과 공무원층(10.2%)이 높고 상인층(8.7%)과 노무자층(자유노무자 9.5%, 일반기능 및 노무자 8.9%)이 낮게 나타났다.

韓吉禮⁶⁾에 의하면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소득계층별로는 피복비가 증가추세로 나타나며, 1977년 기준에서 가구주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가가가 가장 높은 10.1%, 기능공·상용노무자가가 9.7%, 공무원가가 9.3%, 자유노무자가가 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인원수별로는 2인가구 11.5%, 8인가구 9.0%로 낮게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4/4분기가 가장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월동준비때문이라고 밝혔다.

金貞熹⁷⁾은 1971년부터 1981년까지 소득계층별로는 피복비의 감소경향을 나타내었고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는 Ogburn의 법칙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가구원수별로는 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라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이었고 그 증가경향은 다른 비목에 비해 낮은 추세를 보였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출추세로서 4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감소하다가 50대 초반에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崔蓮生⁸⁾은 1975년부터 1982년까지의 추이분석 결과, 가정생활주기단계별 피복비 지출은 가족인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가 가장 높은 구성비(9.9%)를 나타내었고 자녀의 중등교육기인 4단계(9.1%)에 가장 낮았다가 소득이 증가된 5.6단계(9.5%, 9.8%)에서 높아지다가 55세 이후의 은퇴기(9.2%)에 다시 낮아졌다.

金英淑⁹⁾은 한국과 일본의 피복비소비구조분석에서 한국은 '63년 6.1%, '70년 10.1%, '80년 9.1%, '84년 9.0%로서 고도성장기에는 증가하였다가 현재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은 '63년 12%, '70년 10%, '83년 8%수준으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섬유공업의 발전으로 인한 대량생산으로 피복비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다양한 유형의 기성복의 등장으로 피복유통시장 전반에 싸게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李仁淑¹⁰⁾은 1984년 설문지 조사에 의한 분석에서 피복비는 불만족형 비목으로, 지출감소에 대한 불만족의 크기가 다른 지출비목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힌 바 있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지출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불만족의 큰 원인이 되는 비목으로, 고소득계층의 불만족형 가계지출비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III. 피복류 소비지출구조 분석

1. 피복비 소비지출 변화의 추이분석

가계의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가계소득, 물가,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의 크기 변화, 직업)등을 들 수 있다.

1) 피복비 소비지출의 시계열 분석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따른 1963년부터 1987년까지의 피복비 지출구조는 다음과 같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의 피복비 지출항목은 의복과 기타피복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1976년부터는 피복 및 신발비로 분류되었으며 그 세부항목은 의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표 III-1>참조).

피복비 소비지출의 구성비 변화는 1963년 5.9%, 1966년 7.7%, 1971년 9.4%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었고, 피복 및 신발비의 소비지출 구성비는 1976년 8.8%, 1981년 8.1%, 1986년 7.6%, 1987년 7.7%로 구성비는 감소 추세에 있다. 세부항목으로서는 의의가 4%이상, 신발이 1%이상으로 전피복비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피복 및 신발비의 소비지출구조에 있어서 의의와 신발비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표 III-2>참조)¹¹⁾.

2) 피복비 소비지출의 횡단분석

1987년을 기준으로 피복·신발비*는 31,546원으로 전년의 26,747원에 비해 17.9%증가하였으며, 이는 속너복, 한복, 운동복 등의 의의(22.2%)와 스웨트·셔츠(18.7%)의 지출이 높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Ogburn의 법칙(피복비는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등 소비에 관한 제법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1987, p. 14.

<표 III-1> 피복 및 신발비의 세부항목

항 목	내 용
외 의	한복, 신사복, 숙녀복, 코트, 학생복, 아동복, 잠바, 바지, 스커트, 운동복, 기타 외의(예비군복, 민방위복, 작업복, 교련복)
스웨트·셔츠	와이셔어츠, 남방셔어츠, 블라우스, 티셔어츠, 스웨트(탈조끼)
내 의	남자내의(런닝샤스, 동내의, 팬티), 여자내의(런닝셔어츠, 브레지어), 어린이내의, 잠옷
작물·실	양복지, 양장지, 한복지, 기타작물(안감지), 실(털실, 재봉실, 기타실)
기타 피복	양말(스포츠용 양말 포함), 스타킹, 기타 양말(버선, 덧카바), 모자, 목도리(스카프, 머플러, 쇼울), 넥타이, 장갑, 기타피복(단추, 지퍼 및 의복에 부착된 부속물, 앞치마)
신 발	남자구두, 여자구두, 아동화, 운동화(각종 운동용 신발, 단 스케이트나 로울러스케이트가 부착된 신발은 제외)
피복 및 신발서비스	재봉료(편물공임, 맞춤비), 세탁료(드라이클리닝, 염색), 수선료(의복 및 신발 수선료), 기타서비스(구두담은 값), 피복임차료(수영복)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87.

(1) 소득계층별 피복비 소비지출 구조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1987)에서 피복·신발비는 I분위 6.9%, II분위 7.6%, III분위 7.7%, IV분위 7.6%, V분위 8.3%로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비목으로 「엔겔의제 4 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²⁾.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피복비의 소비지출에서 저소득층은 1963년 4.1%, 1966년 6.6%, 1971년 10.9%, 1976년 8.8%, 1981년 9.7%, 1986년 7.0%로서 2차 경제 개발년도 기간중에 피복비 소비지출이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 3,4,5,6차 경제개발년도로 갈수록 감소됨을 알 수 있다(<표 III-3> 참조).

(2) 가구주 직업별 피복비 소비지출구조

1966년에는 일반직원(8.46%)이 가장 높고 자유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1963~1986, 근로자가계를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표본가구의 누적백분비에 따라 저소득층가계 40%, 중소득층가계 40%, 고소득층가계 20%로 분류하였다.

<표 III-2> 전도시 가계의 피복비 소비지출 구성의 추이(1963~1987)

항목	년도	1963		1966		1971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소 비 지 출		7080	100.0	13560	100.0	34970	100.0		
피 복 비		420	5.9	1050	7.7	3290	9.4		
외 의 비		280	3.9	740	5.4	2090	6.0		
기 타 피 복		140	2.0	310	2.3	1200	3.4		
항목	년도	1976		1981		1986		198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소 비 지 출		72650	100.0	216648	100.0	353956	100.0	406955	100.0
피 복 및 신 발		6391	8.8	17644	8.1	26747	7.6	31546	7.7
외 의 비		3457	4.9	9692	4.5	14547	4.1	17777	4.3
스 웨 트 · 샤 스		493	0.7	1856	0.9	3045	0.9	3615	0.9
내 의 비		464	0.6	1160	0.5	1815	0.5	2038	0.5
직 물 · 실		546	0.8	881	0.4	814	0.2	720	0.2
기 타 피 복		310	0.4	920	0.4	1410	0.3	1557	0.4
신 발		900	1.2	2708	1.2	4184	1.2	4756	1.1
피복 및 신발서비스		221	0.3	427	0.2	933	0.3	1083	0.3

자료 : 경제기획원, 전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도시가계연보(서울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3, 1966, 1971, 1976, 1981, 1986.

<표 III-3>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피복비 소비지출 구조

(단위: 원, %)

년도	저 소득 층			중 간 소 득 층			고 소 득 층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 성 비 (%)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 성 비 (%)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 성 비 (%)
1963	3573	145	4.10	6189	433	7.00	11611	1051	9.10
1964	4425	168	3.80	7342	372	5.10	13332	924	6.90
1965	4937	244	4.94	8481	597	7.04	15295	1456	9.52
1966	6438	425	6.60	10929	940	8.60	20040	2320	11.58
1967	10034	931	9.28	16477	1925	11.68	29763	4219	14.15
1968	11672	1142	9.78	18946	2308	12.18	34612	5403	15.61
1969	13321	1432	10.75	21864	2748	12.57	39019	5834	14.95
1970	15907	1709	10.74	24091	2884	11.97	43328	5690	13.13
1971	19175	2084	10.87	27555	3042	11.04	47062	5815	12.36
1972	20148	2097	10.41	29917	3052	10.20	54042	6203	11.48
1973	20601	2069	10.04	29761	3279	11.02	58986	6691	11.34
1975	34518	2890	8.37	55710	5237	9.40	104088	12200	11.72
1976	43853	3862	8.81	69716	7133	10.23	128118	14578	11.38
1977	49461	4437	8.97	81993	8950	10.92	147426	18429	12.50
1978	67140	6404	9.54	109543	12645	11.54	190961	24902	13.04
1979	93605	9667	10.32	146322	17863	12.21	240846	32457	13.48
1980	113208	10688	9.44	176025	19130	10.87	296326	36715	12.39
1981	135910	11478	9.74	208446	19879	9.54	369477	40688	11.01
1982	156636	11053	7.05	237177	19072	8.04	405349	36305	8.95
1983	169940	13163	7.74	263396	22052	8.37	455637	39191	8.60
1984	184107	13339	7.25	287761	22599	7.85	495146	40665	8.21
1985	196126	13707	6.99	301548	23171	7.68	553420	43707	7.90
1986	216569	15194	7.02	335997	25796	7.68	589178	46516	7.90
1987	250860	18096	7.21	387359	29688	7.66	653417	54071	8.27

자료: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63~1987.

무자(7.44%)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직업별로 구성비의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1969년에서 일반직원(12.96%)과 자유노무자(7.85%)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1971년에는 자유노무자(9.52%)가 일반기능 및 노무직원(8.89%)보다 높게 나타났다.

1981년 이후부터는 직업별이 세분화되어, 사무 및 관련직종사자(8.60%)가 가장 높고 행정 및 관리직(6.58%)이 가장 낮으며, 1987년에는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직(9.31%)이 가장 높으며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6.69%)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년도별로 구성비의 변화가 큰 직업은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와 군인 및 기타 분류불능직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4>참조)

(3) 가구원수별 피복비 소비지출구조

전반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인가구일 때 구성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1963년부터 196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11%이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1972년부터 1975년까지 감소현상(9.88%~9.55%)이며 1976년부터 1980년까지는 증가추세(10.61~10.80%)에 있다. 1981년 이후로 점점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1981년 9.43%, 1987년 7.64%).

1987년에 2인가구를 100으로 볼 때 3인가구 126.1, 4인가구 149.4, 5인가구 168.2, 6인가구 207.2로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출이 급증한다는

〈표 III-4〉 가구주 직업별 피복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원, %)

년도	가구주직업		근로자		공무원		일반직원		일반기능 및 노무직원		자유노무자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소비지출 (원)	피복비의 구성비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소비지출 (원)	피복비의 구성비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1965	9260	620	11640	820	13410	1000	7.46	7980	550	5650	230	4.07
1966	12660	1010	14940	1230	17920	1510	8.46	10780	800	7800	580	7.44
1967	19100	1980	21210	2290	24430	2520	10.31	16250	1750	11490	870	7.57
1968	24160	2670	26160	2860	31150	3400	10.91	20150	2220	14500	1210	8.34
1969	25260	2880	26980	3060	32960	4270	12.96	20350	2090	15280	1200	7.85
1970	28290	2980	31710	3510	36080	3690	10.23	24450	2590	18970	1820	9.59
1971	32520	3240	34650	3520	42670	4560	10.69	27320	2430	22800	2170	9.52
1972	36370	3340	39170	3600	48170	4490	9.32	29650	2620	24090	2340	9.71
1973	41090	3560	46110	4010	53780	4560	8.49	32370	2860	27150	2310	8.51
1975	62960	5690	76670	7100	81800	7790	9.64	51510	4520	39550	2860	7.23
1976	78860	7330	89990	8760	104290	9560	9.17	63910	5990	56040	4310	7.69
1977	93230	9030	117100	10850	129930	13100	10.08	77230	7480	60390	5150	8.52
1978	124050	12610	146470	14610	169790	18610	10.96	105420	10540	86540	8080	9.34
1979	168443	17488	200860	20509	230072	24737	10.75	144154	14695	126689	13113	10.35
1980	206993	19019	249727	24231	296395	27463	9.26	171911	16099	149095	13106	8.79

년도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교원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성비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성비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성비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성비
1981	442231	35779	8.09	455714	37852	8.31	463549	30520	6.58	324095	27882	8.60
1982	397437	34704	8.73	450395	37216	8.26	372695	31636	8.49	306393	25630	8.37
1983	429667	36963	8.60	490787	41627	8.48	545727	42289	7.75	327919	28077	8.56
1984	446349	36617	8.20	515764	42415	8.22	586607	74719	12.73	359889	28977	8.05
1985	488598	36966	7.57	571083	43370	7.59	744671	55439	7.44	385243	31050	8.06
1986	522387	39391	7.54	598260	47788	7.99	703973	64091	9.10	408114	33348	8.17
1987	553069	46079	8.33	631607	53273	8.43	864782	57834	6.69	474841	38005	8.00
년도	관매종사자			시비스종사자			생산운수장비종사자 및 단순노무자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직		
1981	221841	18916	8.53	234142	19889	8.49	206400	16757	8.12	298316	25037	8.40
1982	218335	19261	8.82	207517	15664	7.55	203057	15784	7.77	227950	20906	9.17
1983	203782	18338	8.99	241602	19791	8.19	220194	17787	8.08	223363	17861	8.00
1984	242580	19141	7.89	266011	18393	6.91	238225	18179	7.63	261097	19586	7.50
1985	279928	22423	8.01	268494	19851	7.39	251402	18284	7.27	274564	18183	6.62
1986	311523	24328	7.81	308399	22887	7.42	278120	19927	7.16	310794	20236	6.51
1987	324106	25967	7.81	353087	25380	7.17	327745	24696	7.54	378374	35243	9.31

자료: 경제기획원, 도시개발연보, 1963~1987.

것을 알 수 있다(<표 III-5>참조).

$$\text{회귀방정식 } Y = 4944.1X + 11360.3^{13)}$$

$$R^2 = 0.9974$$

(4) 가구주 연령별 피복비 소비지출구조

1963년부터 1987년까지는 일반적으로 24세이하에서 지출이 특히 많고 25~29세, 30~34세, 35~39세에서 증가현상이고, 40~49세, 50세이상에서는 감소현상을 보인다. 1969년은 가구주 연령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11%이상을 보였다.

1987년의 경우 24세이하 9.30%, 25~29세 7.78%, 30~34세 7.54%, 35~39세 8.25%, 40~49세 7.47%, 50세이상 7.60%로서 전체소비지출에 대한 피복비 구성비의 한계는 9%~7%정도의 범위를 나타내었다(<표 III-6>참조).

2. 피복비 소비함수

1) 피복비 소비함수의 일반적 추이

1975년부터 1987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정리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피복비의 소득탄력성은 다음과 같다(<표 III-7>참조)

피복비의 소득탄력성을 비목별로 살펴볼 때 1975년과 1976년은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나서 선택적 비목이었으나 1977년 이후부터는 소득탄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필수적 비목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피복 및 신발비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긴요도가 높은 필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복비의 소득탄력성을 세부항목으로 살펴볼 때 1975년부터 1981년까지는 직물·면 및 사, 장신구는 긴요도가 낮은 선택적 항목($\eta_i > 0$)이며, 의복, 양말, 신발은 긴요도가 높은 필수적 항목($\eta_i < 0$)이었다. 1977년 이전에는 기타피복이 선택적 항목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필수적인 항목으로 변화하고 있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는 피복 및 신발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긴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피복 및 신발서비스는 1985년까지 선택적 항목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필수적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소득계층별 피복비 소비함수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가계로 나누어 본 피복비의 소득탄력성계수는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저소득층가계가 1.18로서 가장 높았고 1982년부터 1986년까지에서도 0.862로서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가계비목중에서 피복비 긴요도의 상대성을 의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표 III-8>참조).

3) 가구주 직업별 피복비 소비함수

1963년부터 1981년까지의 피복비 소득탄력성은 직업별로 1보다 크게 나타났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0.978)가 가장 높고,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0.088)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III-9>참조).

4) 가구원수별 피복비 소비함수

피복비의 소득탄력성계수는 1963년부터 1981년까지는 6인이상(1.120)이 가장 높고,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4인가족(0.82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I-10>참조).

5) 가구주 연령별 피복비 소비함수

소득탄력성은 1963년부터 1981년까지는 50세이상(1.160)이 가장 높았고 1982년부터 1986년에는 24세이하(1.1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I-11>참조).

3. 한국 일본의 피복비 소비지출의 비교분석

한국과 일본은 옛날부터 경제적 우호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연환경, 문화, 생활습관, 종교,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등의 여러요인으로 국가간에 서로 상이한 소비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복지국가로서의 선진국인 일본과 중진국인 한국의 피복비 소비지출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다.

첫째, 한국·일본의 피복비 소비지출 구성비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둘째, 한국·일본의 피복비 소비지출의 특성치간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1) 한국·일본의 피복비 소비지출 구조의 추이

피복비의 년도별 세부항목이 다른 관계로 일본과 비교 가능한 1975년부터 비교분석하였다(<표 III-12>참조).

〈표 III-5〉 전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피복비의 소비지출 구조 (단위: 원, %)

가구원수 년도	2인 이하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1963	3720	220	4390	250	5360	330	5910	390	9832	560
1964	4260	220	5810	310	6480	300	7300	360	12597	635
1965	4350	390	6240	410	7030	530	8360	560	12563	742
1966	6320	530	8640	760	9640	820	11080	930	17578	1212
1967	10730	1530	13210	1470	14820	1760	16980	1890	23748	2380
1968	11900	1750	15050	1880	17450	2150	19740	2250	27746	3188
1969	15250	1740	17600	2130	20450	2350	24370	2650	34677	4065
1970	18750	2540	21380	2430	24390	2630	27470	2900	35687	3555
1971	22300	2569	26920	2800	29450	2870	33530	2930	39543	3856
1972	23680	2340	25890	2600	29550	2770	34840	3150	48185	4337
1973	22600	2230	26710	2700	33400	3200	37670	3490	55497	5000
1975	39910	3810	45470	4100	54500	5000	62390	5600	82166	7473
1976	49030	5200	56070	5490	69610	6400	83610	7340	99683	9070
1977	67590	7750	71300	7370	86230	8700	96990	9090	116170	10670
1978	87020	9840	99580	9880	114400	11540	130260	13080	155190	15826
1979	128760	13549	132718	13242	152401	15423	177947	18834	212028	23112
1980	152738	16494	163235	14564	192050	17201	218600	19829	262878	24477
1981	181885	17157	194385	15265	232253	19295	264895	23067	314573	24683
1982	171586	15696	193285	15829	226671	18027	265910	21746	299337	23695
1983	183157	17014	216633	17697	255962	21030	288464	24605	337060	26818
1984	209021	18571	233383	18170	280328	22373	322818	25286	372308	27242
1985	218123	18127	258385	19668	298290	22327	351666	27119	410270	29644
1986	232053	20234	288085	21211	339226	25998	371479	28007	455473	32848
1987	275150	21042	341878	26528	402434	31443	462328	35042	558686	43592

자료: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63~1987.

<표 III-6> 근로자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피복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원, %)

가구주연령	24세 이하			25~29 세			30~34 세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성비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성비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성비
1963	4095	255	6.23	5880	420	7.14	6420	450	7.01
1964	5620	350	6.23	7400	450	6.08	7670	460	6.00
1965	5990	360	6.01	7840	600	7.65	8580	680	7.93
1966	9850	995	10.10	11660	1000	8.58	11740	980	8.35
1967	10910	1040	9.53	15820	2260	14.29	17000	1970	11.59
1968	13040	1255	9.62	16910	1750	10.35	19150	2280	11.91
1969	15700	1760	11.21	20260	2400	11.85	22900	2580	11.27
1970	22830	2390	10.47	24990	3180	12.73	26160	2920	11.16
1971	22530	2180	9.68	27590	3160	11.45	29500	3170	10.75
1972	22140	2030	9.17	28180	2720	9.65	31190	2970	9.52
1973	26570	2710	10.20	31200	3110	9.97	35330	3390	9.60
1975	49180	4620	9.39	49240	5090	10.34	54820	5000	9.12
1976	68210	7380	10.82	65280	6490	9.94	68690	6440	9.38
1977	76150	8100	10.64	81990	8660	10.56	82540	8080	9.79
1978	105410	11500	10.91	108310	11420	10.54	112530	11910	10.58
1979	144714	17326	11.97	149426	15920	10.65	150874	15015	9.95
1980	178618	19026	10.65	177772	15643	8.80	189010	16763	8.87
1981	205424	19312	9.40	212842	17900	8.41	227845	18375	8.06
1982	192976	17113	8.87	208287	17267	8.29	221049	17454	7.90
1983	208152	19744	9.49	221773	18226	8.22	247231	19755	7.99
1984	223569	18700	8.36	245698	18460	7.51	267269	21368	7.99
1985	240541	22051	9.17	261667	19239	7.35	283729	21340	7.52
1986	250115	23642	9.45	288034	20861	7.22	310037	23177	7.48
1987	291535	27108	9.30	332879	25909	7.78	36364	27420	7.54

가구주연령	35~39 세			40~49 세			50 세 이상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성비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성비	소비지출 (원)	피복비 (원)	피복비의 구성비
1963	7460	430	5.76	7090	490	6.91	6495	310	4.77
1964	8840	430	4.86	8560	400	4.67	7710	295	3.83
1965	9510	630	6.62	10370	620	6.04	7805	430	5.51
1966	13290	1050	7.90	13190	990	7.51	11575	765	6.61
1967	18030	1930	10.70	20750	2040	9.83	21210	2120	10.00
1968	21230	2470	11.63	24210	2650	10.95	22915	2920	12.74
1969	25530	2900	11.36	28800	4260	11.32	27870	3300	11.84
1970	26840	2810	10.47	31020	3150	10.15	30400	2690	8.85
1971	31660	3110	9.82	37170	3470	9.34	32645	3355	10.28
1972	35040	3210	9.16	44110	4030	9.14	35425	3215	9.08
1973	39920	3670	9.19	46250	4170	9.02	39025	3210	8.23
1974	62640	5180	8.27	80130	7355	9.18	66065	5605	8.48
1975	77620	6880	8.86	95885	8455	8.82	90995	8320	9.14
1976	90810	8820	9.71	110640	10105	9.13	116720	10895	9.33
1977	122270	12360	10.11	147340	14255	9.67	150770	14885	9.87

1978	162781	16294	10.01	197833	19843	10.03	211987	24230	11.43
1979	209814	18835	8.98	243398	22218	9.13	250285	24922	9.96
1980	252313	19865	7.87	292595	24115	8.24	311077	26364	8.48
1981	245101	20269	8.27	278487	22713	8.16	273251	19784	7.24
1982	276683	23736	8.58	308930	25623	8.29	301148	23886	7.93
1983	300672	24358	8.10	340207	26344	7.74	339176	25874	7.63
1984	319749	25909	8.10	360690	27309	7.57	386894	25271	6.53
1985	347528	27160	7.82	399903	30150	7.54	405294	29164	7.20
1986	392038	32352	8.25	428334	32711	7.47	513829	38252	7.60

자료: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63~1987.

<표 III-8> 소득계층별 피복비의 소득탄력성

년도	저소득층가계			중소득층가계			고소득층가계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1963~81	-4.300	1.180	0.964	-3.54	1.120	0.974	-2.910	1.070	0.978
1982~86	-0.960	0.862	0.884	-0.02	0.799	0.948	2.260	0.638	0.989

추정식: $\ln C_i = \alpha_i + \beta_i \cdot \ln \Sigma C_i + \mu_i$

<표 III-9> 가구주 직업별 피복비의 소득탄력성

가구주 직업 계수	근로자			공무원			일반직원			일반기능 및 노무직원			자유노무자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1963~81	-2.87	1.050	0.984	-2.67	1.030	0.985	-2.67	1.030	0.983	-2.95	1.060	0.985	3.840	1.130	0.974

가구주 직업 계수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교원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사무 및 관련직종사자			판매종사자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1982~86	5.57	0.380	0.820	0.92	0.139	0.890	-2.12	0.978	0.611	-0.48	0.842	0.964	0.17	0.784	0.900

가구주 직업 계수	서비스종사자			생산운수장비종사자 및 단순노무자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1982~86	-1.22	0.890	0.879	1.66	0.658	0.901	8.78	0.088	0.031

추정식: $\ln C_o = \alpha_o + \beta_o \cdot \ln \Sigma C_o + \mu_o$

<표 III-10> 가구원수별 피복비의 소득탄력성

가구원수 계수	2인 이상			3인			4인			5인			6인 이상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1963~81	-3.180	1.080	0.971	-3.240	1.080	0.975	-3.180	1.070	0.975	-3.270	1.080	0.981	-3.780	1.120	0.976
1982~86	0.440	0.760	0.943	-0.004	0.793	0.979	-0.360	0.827	0.967	0.759	0.741	0.978	0.491	0.762	0.984

추정식: $\ln C_n = \alpha_n + \beta_n \cdot \ln \Sigma C_n + \mu_n$

〈표 III-7〉 피복비 항목별 소득탄력성

년도 계수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피복비	-3.12	1.060	0.996	-2.72	1.020	0.994	-2.03	0.963	0.994	-1.94	0.958	0.993	-0.711	0.861	0.983	-1.590	0.927	0.996	-0.913	0.865	0.977
의복	-3.56	1.050	0.994	-22.66	0.976	0.984	-2.33	0.948	0.990	-2.13	0.933	0.991	-1.860	0.915	0.985	-1.950	0.915	0.995	-1.120	0.843	0.978
지문 및 자	-9.56	1.390	0.950	-11.90	1.580	0.923	-7.32	1.170	0.948	-6.79	1.120	0.980	-3.610	0.863	0.837	-6.740	1.110	0.908	-9.120	1.270	0.972
양발	-3.53	1.786	0.977	-3.19	0.749	0.906	-1.58	0.612	0.981	-1.70	0.635	0.955	-2.170	0.691	0.976	-0.822	0.585	0.943	0.377	0.490	0.910
신발	-1.88	1.767	0.995	-2.40	0.809	0.989	-1.13	0.703	0.969	-2.20	0.804	0.982	-0.539	0.673	0.967	-0.314	0.658	0.979	0.599	0.583	0.989
장신구	-11.90	1.600	0.917	-11.00	1.520	0.911	-8.22	1.280	0.959	-9.03	1.360	0.957	-3.380	0.892	0.914	-8.460	1.290	0.933	-9.580	1.360	0.948
기타피복	-5.32	1.020	0.960	-5.57	1.050	0.927	-5.20	1.010	0.927	-3.79	0.893	0.971	-2.300	0.784	0.958	-4.760	0.983	0.966	-4.190	0.918	0.921
년도 계수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피복및신발	-1.600	0.907	0.992	-0.418	0.815	0.993	-0.274	0.800	0.990	-0.983	0.853	0.989	0.589	0.733	0.953	0.605	0.733	0.981	0.605	0.733	0.981
의복	-3.930	1.040	0.989	-2.050	0.891	0.997	-1.980	0.880	0.984	-3.090	0.964	0.987	-1.900	0.874	0.972	-1.460	0.844	0.986	-1.460	0.844	0.986
스웨터, 셔츠	-3.650	0.899	0.987	-2.710	0.831	0.962	-2.600	0.814	0.984	-2.490	0.799	0.972	-2.520	0.802	0.954	-1.400	0.717	0.906	-1.400	0.717	0.906
내의	-0.497	0.620	0.970	-0.904	0.651	0.931	-0.952	0.653	0.984	-0.799	0.634	0.970	-0.359	0.605	0.975	-0.308	0.601	0.968	-0.308	0.601	0.968
지문, 신	-9.090	1.240	0.948	-7.430	1.100	0.839	-7.240	1.080	0.949	-9.980	1.280	0.966	1.760	0.366	0.151	-6.090	0.942	0.869	-6.090	0.942	0.869
기타피복	-0.278	0.578	0.971	-0.804	0.615	0.951	-1.450	0.671	0.949	-0.425	0.589	0.983	0.259	0.536	0.985	1.520	0.440	0.910	1.520	0.440	0.910
신발	-0.128	0.645	0.926	0.796	0.575	0.941	1.470	0.523	0.931	0.642	0.589	0.983	1.490	0.527	0.963	1.690	0.511	0.973	1.690	0.511	0.973
피복및신 발셔츠	-6.900	1.050	0.896	-9.070	1.220	0.965	-9.160	1.220	0.961	-8.450	1.170	0.959	-4.080	0.837	0.827	-5.460	0.936	0.952	-5.460	0.936	0.952

추정식 : $\ln C_j = \alpha_j + \beta_j \cdot \ln \sum C_i + \mu_i$

<표 III-11> 가구조연령별 피복비의 소득탄력성

가구조연령 계수 년도	24 세 이하			25~29 세			30~34 세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1963~81	-3.56	1.120	0.988	-2.860	1.050	0.972	-2.850	1.050	0.978
1982~86	-3.92	1.120	0.846	3.380	0.521	0.936	-0.150	0.808	0.958
년도	35~39 세			40~49 세			50 세 이상		
	α	β	R ²	α	β	R ²	α	β	R ²
	-3.370	1.090	0.970	-3.240	1.070	0.959	-4.160	1.160	0.969
	-0.150	0.813	0.957	0.980	0.723	0.961	0.320	0.769	0.806

추정식 : $\ln Ca = \alpha a + \beta a \cdot \ln \sum Ca + \mu a$

<표 III-12> 한국, 일본 근로자가계의 피복 및 신발비의 소비지출 비교

(단위 : ₩, ¥, %)

항목 년도	소 득		소 비 지 출		피 복 및 신 발				외 의 %		스웨트·샤츠%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	일본(¥)	%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1975	65540	236152	56890	166032	4973	8.7	14933	9.0	53.1	46.5	8.4	12.2
1976	88270	258237	71150	180663	6399	9.0	16134	8.9	54.8	47.0	7.5	12.9
1977	105910	286039	82830	197937	7899	9.5	16645	8.4	51.7	46.4	11.6	13.0
1978	144510	304562	109800	208232	10846	9.9	16778	8.1	52.1	46.1	11.2	13.3
1979	197749	326013	145317	222438	14617	10.1	17587	7.9	53.1	46.8	11.1	13.5
1980	234086	349686	175471	238126	16045	9.1	17914	7.5	53.2	46.1	10.8	14.9
1981	280953	367111	213423	251275	17416	8.2	18417	7.3	54.5	46.7	10.5	15.0
1982	317052	393014	239101	266063	19327	8.1	18955	7.1	51.3	46.7	10.5	15.0
1983	364019	405517	264456	272199	21917	8.2	18910	6.9	52.5	46.0	12.0	15.9
1984	402297	424025	288396	282716	22585	7.8	19236	6.8	51.8	45.7	11.9	16.0
항목 년도	내 의 (%)		직물·실 (%)		기타피복 (%)		신 발 (%)		피복 및 신발서비스%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1975	7.2	8.0	7.6	6.4	5.4	9.4	15.1	8.8	3.2	8.7		
1976	7.0	8.3	8.8	6.6	4.8	8.1	13.4	8.7	3.6	8.4		
1977	8.0	8.8	8.0	6.7	4.6	7.5	13.4	9.4	2.6	8.1		
1978	7.7	9.2	8.0	6.7	4.5	6.8	13.9	9.8	2.6	8.1		
1979	7.0	8.9	7.1	6.4	4.8	6.2	14.1	9.8	2.8	8.2		
1980	6.9	8.9	6.0	6.6	5.2	5.8	14.8	10.4	3.0	7.3		
1981	6.7	8.4	5.0	6.5	5.2	5.4	15.5	10.4	2.5	7.6		
1982	6.7	8.4	5.0	6.5	5.2	5.4	15.5	10.4	2.5	7.6		
1983	7.5	8.7	4.0	6.5	5.2	4.8	15.4	10.4	3.3	7.6		
1984	7.5	9.0	3.8	6.5	5.7	4.7	15.8	10.3	3.4	7.8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75~1984.

日本經濟企劃廳 統計局, 1975, 1980, 1984.

전반적으로 한국의 피복 및 신발비의 구성비가 높았으며 특히 1979년은 한국 10.1%, 일본 7.9%로서 2.2%나 높은율을 나타내었다. 피복 및 신발비의 세부항목으로서 의의, 신발은 한

국이 일본보다 4~7%높게 나타났고, 스웨트·샤스, 피복 및 신발서비스는 일본이 3~5%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소비지출의 순위가 외의, 신발, 스웨트·샤스, 내의 순이며 일본은 외의, 스웨트·샤스, 신발, 내의 순으로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내었으며, 한국에서는 직물·실, 내의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일본은 기타피복, 피복 및 신발서비스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2) 다변인 회귀분석에 의한 피복비 특성치 비교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¹⁴⁾에 의하여 각 피복·신발비간의 우선상관을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R²로서 각각 분석하였다.

한국의 피복·신발비 비목은 도시가계연보에서 사용된 자료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본은 1975년부터 1984년까지의 구성비로서 분석하였다.

SPSS/PC⁺를 수행하기 위한 양국의 피복 및 신발비 항목의 분류 code는 다음표와 같다(〈표 III-13〉참조).

분석결과에서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간의 다중상관계수(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를 말한다. 다중상관계수를 제공한 것이 R²로서 이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모형의 유의성 검정은 DF와 F값으로 F분포표를 보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가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소비지출, 피복 및 신발비를 종속변수로 한 각 독립변인간의 B, BETA, R²의 값은 다음과 같다.

소득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한국은 외의, 기타피복, 피복 및 신발서비스의 순이며 일본은 스웨트·샤스, 피복 및 신발서비스, 직물·실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14〉참조).

〈표 III-13〉 피복 및 신발비 항목의 분류 CODE

code	항 목	code	항 목
V1	소 득	V6	외 의
V2	소비지출	V7	직물·실
V3	피복 및 신발비	V8	기타피복
V4	외 의	V9	신 발
V5	스웨트·샤스	V10	피복 및 신발서비스

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한국은 기타피복, 외의, 직물·실의 순이며, 일본은 스웨트·샤스, 피복 및 신발서비스, 직물·실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15〉참조).

피복 및 신발비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 한국은 외의, 스웨트·샤스, 기타피복의 순이며 일본은 스웨트·샤스, 내의, 피복 및 신발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16〉참조).

종속변수인 소득, 소비지출, 피복 및 신발비의 R² 값은 피복 및 신발비가 가장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도시근로자 가계의 피복류 소비지출구조분석에서 피복류의 비목 분류가 1963년부터 1975년까지는 피복비로 1976년부터는 피복 및 신발비로 분류되어 이에 따른 세부항목도 변경되었다.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63년부터 1987년까지의 시계열분석과 횡단분석을 하였고 한국·일본과의 비교연구로는 1975년부터 1984년까지의 시계열분석 및 다변인 회귀분석에 의한 우선상관계수의 특성치를 비교하였다.

1. 피복비의 구성비 변화는 1971년(9.4%)까지 증가추세에 있었고 1976년 이후부터는 감소추세에 있었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엔겔의 제 4 법칙」이 입증되었고 Ogburn의 법칙(피복비는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도 잘 적용되었다.

가구주 직업별로는 직업분류가 년도별로 다른 관계로 1963년부터 1980년, 1981년부터 1987년까지로 나누었다. 전자에서는 일반직원의 소비지출 구성비가 높았고 후자에서는 사무 및 관련직종사자가 가장 높고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년도별로 구성비의 변화가 큰 직업은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와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별로는 전반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인가족일때 구성비가 높은 경향이였다. 1987년(회귀방정식 $Y=4944.1X+11360.3$)에는 가

<표 III-14> 소득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의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순위	한 국			일 본		
	항 목	B	BETA	항 목	B	BETA
1	외 의	18.6532	0.4980**	스웨트·샤스	110.9064	0.7955***
2	기타피복	126.5959	0.3471	피복 및 신발서비스	55.6898	0.1202**
3	피복 및 신발서비스	84.7283	0.1587*	직물·실	-61.3185	-0.0960**
4	직물·실	-80.1918	-0.0973*	내 의	17.3221	0.0609
5	내 의	5.1469	0.0305			
R-SQUARE : 0.99776				R-SQUARE : 0.99807		

* : p<.05 ** : p<.01 ***p<.001

<표 III-15> 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의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순위	한 국			일 본		
	항 목	B	BETA	항 목	B	BETA
1	기타피복	151.8112	0.6108**	스웨트·샤스	72.3415	0.7975***
2	외 의	11.2633	0.4412**	피복 및 신발서비스	46.7733	0.1551*
3	직물·실	53.2001	-0.0883**	직물·실	-36.4415	-0.0877**
4	스웨트·샤스	-2.1046	-0.0183	내 의	5.2168	0.0289
5	피복 및 신발서비스	0.1143	0.0003			
R-SQUARE : 0.99835				R-SQUARE : 0.99819		

* : p<.05 ** : p<.01 *** : p<.001

<표 III-16> 피복 및 신발비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의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순위	한 국			일 본		
	항 목	B	BETA	항 목	B	BETA
1	외 의	1.0958	0.5964***	스웨트·샤스	2.6672	0.5032***
2	스웨트·샤스	1.5200	0.1837***	내 의	3.2112	0.2968**
3	기타피복	2.8732	0.1606***	피복 및 신발서비스	3.9993	0.2270**
4	피복 및 신발서비스	1.4630	0.0559*	직물·실	2.0179	0.0831**
5	직물·실	0.9198	0.0212**			
R-SQUARE : 0.99995				R-SQUARE : 0.99734		

* : p<.05 ** : p<.01 *** : p<.001

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출이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24세이하에서 지출이 특히 많

고 50세이상은 감소현상을 보였다.

2. 피복비 소비함수의 추정식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추이에 의하면 소득탄력성은 직물·면 및 사, 장신

구, 피복 및 신발 서비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양말·신발(1975년~1981년), 내의, 기타피복, 신발(1982년~1987년)에서 낮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탄력성계수는 저소득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긴요도의 상대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직업별 소득탄력성은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별, 소득탄력성은 6인 이상(1.12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986년에는 4인가족(0.827)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 소득탄력성은 50세 이상(1.16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한국과 일본의 피복비 비교연구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피복 및 신발비의 구성비가 일본보다 높았으며, 특히 1979년에는 2.2%나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의의, 신발이 높게 나타났고 일본은 스웨트·샤스, 피복 및 신발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다변인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한국은 의의, 기타피복, 피복 및 신발서비스의 순이며 일본은 스웨트·샤스, 피복 및 신발서비스, 직물·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한국은 기타피복, 의의, 직물·실의 순이며 일본은 스웨트·샤스, 피복 및 신발서비스, 직물·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복 및 신발비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한국은 의의, 스웨트·샤스, 기타피복의 순이며 일본은 스웨트·샤스, 내의, 피복 및 신발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복 및 신발비가 가장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종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된 여러 학자들의 부분적인 연구결과를 참고로 종합하여 1963년부터 1986년까지의 24년간의 시계열분석, 횡단분석, 비교분석을 통해 소득 증가로 인한 피복비 지출 증가가 계지출비목중에서 선택적비목에서 필수적 비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계관리 운용에 지침이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피복생활의 다양한 복식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 실제적인 의생활 계획 및 지출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1. 薛鳳植, 「韓國家計의 消費行爲」(서울: 創文閣, 1978), pp. 33-34.
2. Prais, S.J., and H.S.Houthakker.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s*, 2nd e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p. 146-152.
3. Allen, R.G.D., and A.L.Bowley, *Family Expenditure*, (London: Staples, 1935.) 奥村忠雄·多田吉三, 「家計調査の方法」, (光生館, 1981), p. 28, 再引用.
4. 戶田正志, 「家計經濟學」(東京: 酒井書店, 1971) p. 108.
5. 李基榮, “全都市勤勞者家口の 消費構造의 分析”,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3)
6. 韓吉禮, “우리나라 家計收入과 消費形態에 關한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8)
7. 金貞熾, “人口 및 經濟的 變數가 都市家計消費支出에 미치는 影響分析”,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8. 崔蓮生, “우리나라 都市勤勞者 家口の 家計費支出分析에 關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9. 金英淑, “韓國과 日本의 經濟社會變化 및 家計構造에 關한 比較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3권 2호, 1985.
10. 李仁淑, “家庭主婦의 滿足度에 따른 家計支出費目類型에 關한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11. 金英淑, “韓國家庭의 家計消費類型 分析”,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p. 23)
12.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87, p. 21.
13. 경제기획원, 전제서, p. 18.
14. 朴聖炫, 「回歸分析」, (서울: 大英社, 1981) pp. 447~489.
15. 朴惠敬, 「消費經濟學」, (서울: 博英社, 1985)
16. 宋炳洛, 「韓國經濟論」, (서울: 博英社, 1981)
17.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63~1987.
18. _____, 「主要海外經濟指標」,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86, 1987.
19. _____, 「經濟白書」, 1986.
20. 馬場紀子, “日本にずける近年の家計の動向と展望”. 韓·日家政學. Symposium, 1985.
21. 森英子, “總理府統計局家計調査結果にずける消費支出變動要因に關する研究”. 「日本家政學雜誌」, Vol. 36, No. 5, 1985.

22. 經濟企劃廳. 「世界經濟白書」, 東京: 大藏省印刷局, 1987.
23. Allen R.G.D. "Expenditure Patterns of Families of Differing Types." *Studies of Mathematical Economics and Econometrics*, pp. 190-207. Edited by Lange, McIntyre and Yntema.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42.
24. Clseo Fitzsimmons, Flora Williams. *THE FAMILY ECONOMY Nature and Management of Resources*. Edwards Brothers, Ann Arbor: Michigan, 1975, p. 2.
25. Day Monroe. "Pre-Engel Studies and the Work of Engel: The Origins of Consumption Research"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3, No. 1. 1974, p. 43.
26. Engle Ernst, *Die Produktions-und Konsumptions verhältnisse des Königreichs Sachsen*. First published in Zeitlich Sachsischen Ministeriums des Inners, No. 8 and 9, Sunday, Nov. 22, 1857. Republished, Bulletin de L'Institute International de Statistique, 1895, IX, Part I. Appendix, pp. 1-54.
27. Houthakker. H.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 Cammemorating the Centenary of Engels Law" *Econometrica*, Vol. 125, July 1957.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8, June 1958.
28. Kim, K.S. and Kim, D.Y. "The Effects of Household Size and Structure and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Patterns" KDI Interim Report 7408, 1974.